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1 No. 2, 101-108, October, 2014

ISSN 2288-2898
http://dx.doi.org/10.16952/pns.2014.11.2.10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김혜경[1] · 이은희[2]

강릉아산병원 간호사[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2]

Comparison of Parenting Stress between Married Migrants and Korean Women

Kim, Hae Kyeong[1] · Lee, Eun Hee[2]

[1]RN, Gangneung-Asan Hospital, Gangneung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arenting stress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Korean women. **Methods:** Subjects were 68 married migrant women and 70 Korean women raising children aged seven years or younger, living in three different cities in Gangwon Do. To measure parenting stress, we used Kim's (1997) questionnaire that had been modified from Richard & Abidin's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age, academic credentials, job, monthly income, and achievement of maternal ro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parenting stress scores ($p<.355$),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stress ($p<.007$)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programs should consider the nati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family.

Key Words: Parenting stress, Marriage migrant, Wome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드문 현상이었으나, 최근 10년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인종사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2010년 35,098건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하여 전체 혼인의 10.8%를 차지하여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이며, 외국여성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여성들이 많았으나 점차 국적이 당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중에는 다문화 출생아의 증가가 중요한데, 2010년 다문화 출생아는 20,312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하였고 전체 출생아중 4.3%를 차지하여 매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외국계 주민자녀(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만 18세 이하)는 98,531명에 이르며, 이들 중 75.1%는 만 7세 이하의 아동이었으며, 다문화 출생아의 부모를 보면 아버지는 한국인 남성으로 85.8%가 한국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는 77.0%가 외국인이었고, 전체 다문화 출생아의 65%를 30세 미만의 여성이 출산하였다.[1] 강원도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 자녀의 52.9%가 6세 미만으로 나타났다.[2]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주요어: 양육 스트레스, 결혼이주, 여성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College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49 Namwon-ro, Panbu-myeon, Wonju 220-711, Korea.
Tel: +82-10-2339-1435, Fax: +82-33-760-8004, E-mail: leeeh@gwnu.ac.kr

- 이 논문은 김혜경의 2012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년 8월 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일 /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2일

© 2014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를 겪고 있다. 또한 출산 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겪는 건강관리 어려움,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가족들의 무관심, 경제적 문제, 임신동안 음식섭취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3-5] 즉,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이민자로서 문화 적응문제와 출산과 자녀양육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만큼은 그들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자녀교육과 양육에 관심으로 예방접종, 이유식, 응급처치 등 건강 관련 교육과 유치원 교육, 학원 교육 등 한국 교육체계에 대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5] 자녀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6-8] 결혼이주여성은 정착 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새로운 생활로의 적응과정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도하게 되는데, 특히 시어머니의 양육방식 고수로 인해 자신의 고유한 방식은 전혀 적용하지 못하여[4,9] 자녀 양육에 있어 그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남편의 육아 참여, 결혼생활 등이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10]

양육경험 및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을 보면 그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Lee[10]와 Lee[11]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Yin과 Jang[12]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출신국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구[11]가 있는 반면 차이가 없는 연구도 있었다.[10]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한국여성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자녀가 있는 20대에서 40대의 여성들에게까지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비교한 Lim과 Lee[13]의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과 역할부담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Kim[14]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의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6,8,15] 삶의 질,[16]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17] 결혼만족도,[18] 임신과 출산 관련 연구,[3,4] 산후우울[7]에 대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적절하고 개별화된 임상적 접근을 위해 인간의 삶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문화적 민감성의 개발이 필요하다.[21-23] 즉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여 간호해야 하며,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 간호사들이 갑작스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및 간호요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하여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통합적인 부모교육 및 양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및 양육생활 특성을 비교한다.
-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결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G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GNAH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과제번호 2011-031),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질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질문지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하는 3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α=.05 Power=0.90 e.s=0.25 일 때 대상자수는 한 그룹 당 68명을 목표로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문화 센터의 도우미(출신국별 통역사, 이주한 여성 등)가 개별 면접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지만, 언어적 비언어적 문제로 인한 편견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엔 신중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양육생활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교육정도, 자녀 수, 및 출신국 등이 포함되었으며, 양육생활 특성에는 자녀 양육 시 행복감, 역할획득, 남편도움, 남편 외 가족도움은 객관화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ichard와 Abidin[24]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게 번안, 수정한 Kim[25]의 질문지를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영역 12문항, 부모-자녀관계 영역 12문항, 아동영역 11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의 5점 평점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구의 점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928이었으며, 한국여성 .940, 이주여성 .921이었다. 영역별 신뢰도는 부모영역 .893, 부모-아동 영역 .892, 아동영역이 .807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양육생활 특성, 및 양육 스트레스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x^2-test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특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비교는 t-test와 ANOVA 및 일변량 일반선형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

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한국여성은 31~35세가 29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은 30세 이하가 37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7.66, p<.001). 교육정도는 한국여성은 대졸 이상이 54명(77.1%)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주여성은 36명(52.9%)으로 고졸이 가장 많아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49.94, p<.001). 직업의 유무는 한국여성은 직업이 없는 여성이 37명(52.9%), 결혼이주여성은 51명(75.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7.32, p=.007), 월수입에서는 한국여성은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0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주여성은 200만원 이하가 44명(64.7%)으로 가장 많아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41.92, p<.001). 동거가족에서는 남편과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한국여성은 57명(81.5%), 결혼이주여성은 47명(69.1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9.45, p=.092).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적은 중국 25명(36.8%), 베트남 16명(23.5%), 필리핀 10명(14.7%), 동남아시아 10명(14.7%), 동북아시아 7명(10.3%) 순이었다. 국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36명(52.9%),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18명(26.5%), 10년 이상이 10명(14.7%), 2년 미만이 4명(5.9%) 순으로 5년 미만인 여성이 많았다.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쓰는 언어는 한국어가 66명(97.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에게 이주여성 본국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여성이 45명(66.2%), 가르치지 않는 여성은 23명(33.8%)이었다. 본국 언어를 가르치는 이유로는 '두 나라 말을 알게 되면 좋아서', '엄마 나라에 대해 알게 하고 싶어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Women and Marriage Migrant Women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38) n (%)	KW (n=70) n (%)	MMW (n=68) n (%)	x^2	*p*
Age (year)	＞30	49 (35.5)	12 (17.1)	37 (54.4)	27.66	＜.001
	31~35	48 (34.8)	29 (41.4)	19 (27.9)		
	36~39	20 (14.5)	18 (25.7)	2 (2.9)		
	＜40	21 (15.2)	11 (15.7)	10 (14.7)		
Education	Primary school	2 (1.4)	0 (0.0)	2 (2.9)	49.94	＜.001
	Middle school	18 (13.0)	1 (1.4)	17 (25.0)		
	High school	51 (37.0)	15 (21.4)	36 (52.9)		
	≥College	67 (48.6)	54 (77.1)	13 (19.1)		
Job	Yes	50 (36.2)	33 (47.1)	17 (25.0)	7.32	.007
	None	88 (63.8)	37 (52.9)	51 (75.0)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56 (40.6)	12 (17.1)	44 (64.7)	41.92	＜.001
	200~300	38 (27.5)	20 (28.6)	18 (26.5)		
	300~400	23 (16.7)	19 (27.1)	4 (5.9)		
	＜400	21 (15.2)	19 (27.1)	2 (2.9)		
Household	Husband+children	104 (75.3)	57 (81.5)	47 (69.1)	9.45	.092
	Husband+children+parents-in-law	18 (13.0)	5 (7.1)	13 (19.1)		
	Husband+children+parents	7 (5.1)	3 (4.3)	4 (5.9)		
	Other family	9 (6.5)	5 (7.1)	4 (5.9)		
Mother country	Korean		70 (100.0)			
	China			25 (36.8)		
	Vietnam			16 (23.5)		
	Phillipine			10 (14.7)		
	East-south Asia			10 (14.7)		
	East-north Asia			7 (10.3)		

KW=Korean women; MMW=Marriage migrant women.

'엄마의 친척들을 만나면 대화하게 하려고'가 많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남편의 권유로', '아직 어려서', '여유가 없어서' 등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잘한다'가 그 다음 순서이었다. 자녀의 언어실력은 '말하기', '듣기'는 '잘한다.'가 가장 많았고, '읽기', '쓰기'는 대상자의 자녀가 7세 이하라는 특성상 '매우 못한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생활 특성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생활 특성 중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에서는 한국여성이 51명(72.9%), 결혼이주여성 52명(76.5%)이 '매우 행복하다'로 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5.08, p=.166). '엄마로써 자녀를 얼마나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한국여성은 '보통으로 잘 하고 있다'가 32명(45.7%), 결혼이주여성은 '조금 잘 하고 있다'가 29명(42.6%)로 가장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x^2=12.98, p=.011) 차이를 보였다. '자녀를 기르는데 남편 외 다른 가족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에서는 '매우 도와주고 있다'에 한국여성이 12명(38.7%), 결혼이주여성이 14명(19.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x^2=1.17, p=.883), '자녀를 기르는데 남편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는 한국여성은 '보통으로 도와주고 있다'가 22명(31.4%), 결혼이주여성은 '조금 도와주고 있다'가 20명(29.4%)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1.03, p=.905).

3.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의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한국여성이 2.19±0.5이며, 결혼이주여성은 2.27±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0.93, p=.355). 양육 스트레스의 세부 영역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부모영역에서 한국여성 2.52±0.7, 결혼이주여성 2.45±0.7 (t=0.55, p=.582)로, 부모-자녀영역에서 한국여성 1.71±0.5, 결혼이주여성 1.71±0.5 (t=-1.12, p=.266)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영역에서 한국여성이 1.99±0.6, 결혼이주여성 2.29±0.7 (t=-2.76, 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비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한국여성은 30세 이하에서 2.17±0.7, 결혼이주여성은 40세 이상이 2.40±1.0로 양육 스트레스 평균이 높음을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02, p=.387). 교육정도는 한국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고졸이 2.40±0.6, 결혼이주여성은 초등졸업이 2.54±0.6로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3.05, p=.051). 월수입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우 수입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400만 원 이상의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280, p=.840). 직업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F=0.70, p=.404).

논 의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 양육에 대한 결정 및 방법 등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양육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타협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부간의 자녀 양육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친척, 지역사회 및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22] Giger와 Davidhizar는 문화간호사정의 요인으로 문화적으로 독특한 개인, 의사소통, 공간,

Table 2. Comparison of Parenting Stress between Korean Women and Marriage Migrant Women (*N*=138)

Variables	KW (n=70)	MMW (n=68)	t	*p*
	M±SD	M±SD		
Parenting	2.52±0.7	2.45±0.7	0.55	.582
Parents-children	1.71±0.5	1.71±0.5	-1.12	.266
Children	1.99±0.6	2.29±0.7	-2.76	.007
Parenting stress	2.19±0.5	2.27±0.6	-.923	.355

KW=Korean women; MMW=Marriage migrant women.

Table 3.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Women and Marriage Migrant Women (*N*=1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KW (n=70)	MMW (n=68)	F	*p*
		M±SD	M±SD		
Age (year)	>30	2.17±0.7	2.11±0.4	1.02	.387
	31~35	2.16±0.5	2.23±0.7		
	36~39	1.97±0.6	2.12±0.5		
	<40	1.90±0.4	2.40±1.0		
Education	Primary school	-	2.54±0.6	3.05	.051
	Middle school	1.54±0.0	2.30±0.7		
	High school	2.40±0.6	2.11±0.5		
	≥College	1.99±0.5	2.22±0.8		
Job	Yes	2.01±0.4	1.97±0.3	0.70	.404
	None	2.13±0.6	2.27±0.7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39±0.8	2.28±0.7	0.28	.840
	200~3000	2.11±0.4	2.12±0.4		
	300~400	1.88±0.5	1.76±0.2		
	<400	2.02±0.4	1.62±0.1		

KW=Korean women; MMW=Marriage migrant women.

사회조직, 시간, 환경통제, 및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간호사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1] 즉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행위와 효능감[15] 및 양육 스트레스[9]에 대하여 나라별로 조사를 한 연구를 보면 출신국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베트남 여성과 한국여성의 산후우울의 비교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7]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출신국가 별로 문화적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간호사들은 대상자 간호 시에 출신국가 및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총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같은 도구로 영아기 자녀를 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26]와 동일한 결과이므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두 그룹 간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연구되었던 선행연구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상반된다.[14] 그러나 Leung, Leung과 Chan[27]의 연구에서 홍콩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새로이 이주한 부모의 양육 걱정(parenting distress)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어린이의 문제행동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면 어린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좀 더 큰 자녀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3]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는 문화 특수한 현상도 있지만,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즉 문화 보편적인 현상인 사회 경제적인 특성,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결혼만족과 같은 부부 관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공변량으로 하는 양육 스트레스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 간 문화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었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은 결혼과 출산에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한국 여성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세초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출산 연령도 20대 초반이다.[5] 따라서 교육정도와 경제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은 매우 차이가 있는데 비해 양육생활 특성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면서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문화적 현상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보면, 한국여성의 연령은 31~35세가 29명(41.4%)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30세 이하가 37명(54.4%)으로 가장 많아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x^2=27.66, p<.001),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9]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한국여성은 연령이 젊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수입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많다는 선행연구[9,18]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8, p=.840).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다른 연구[10]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직업 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두 그룹간의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양육 스트레스는 문화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 보편성에 가까운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세부항목 중 부모영역이나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반면 아동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여성은 1.99±0.6점, 결혼이주여성은 2.29±0.7점으로 한국여성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2.76, p=.007). 아동영역의 문항들은 주로 아이의 특성과 기질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자녀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이 늦어질 것을 걱정한다는 Han[6]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엄마로써 자녀를 얼마나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보다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7세 이하의 자녀들의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녀의 행동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겠지만, 이주민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 이미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결과[26]를 보면 다문화 가정 2세들을 위한 개별화된 자녀양육 및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그러나 문

화적 및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하여 국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점, 자료수집이 쉽지 않아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글에 익숙하지 않아 설문지 응답 시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생했을 다양한 편견 등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한 연구전략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던 점 들을 보완하고, 초등생 이상의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및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에 소재하는 3개의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 중,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연구로서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수집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68명, 한국여성 70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다문화센터의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Richard와 Abidin (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수정한 Kim (1997)의 도구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는 .928이었다.

두 그룹은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여성의 학력, 직업,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두 그룹간 인구학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엄마로써 자녀를 잘 기르고 있는 정도를 묻는 엄마 역할 지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은 긍정적 답변으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삶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양육 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간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및 경제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의 세부영역 비교에서 아동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합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자녀 양육은 문화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문화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하며, 특별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문화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양육은 부부간에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개별화된 자녀교육 및 부부교육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Kosis.kr [internet]. Seoul: Statistic Korea; c2007 [updated 2014 Aug 13; cited 2010].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10&conn_path=I2.
2. Kim ES. A study on analysis of the actual status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ggestions of the policy in Gangwondo. Chuncheon: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0.
3. Jeong GH, Koh HJ, Kim KS, Kim SH, Kim JH, Park HS, et al.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4):261-9.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261
4. Lim H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3):243-55.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3.243
5. Lee EH, So AY, Lee HK. Services improvement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s-Focused on health promotion service strategies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s family. Chuncheon: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2010.
6. Han GS.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2006;39(1):195-219.
7. Choi EY, Lee EH, Choi JS, Choi SH.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stpartum depressio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39-51.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39
8. Yang JH, Park HJ, Kim SS, Kang EJ, Byun SH, Bang JS.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 Korean Acad Nurs. 2012;42(1):36-47. http://dx.doi.org/10.4040/jkan.2012.42.1.36
9. Kim JH, Oh JA, Yoon CM, Lee JH.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 - 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Parent-Child Health J. 2009;12(1):46-60.
10. Lee MR.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 Child Stud. 2013;34(4):143-62.
11. Lee SM, Lee KA.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parenting behavior. J Future Early Childhood Educ. 2010:17(3);71-105.
12. Yin CY, Jang YA.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12; 23(1):5-16.
13. Lim JH, Lee HP.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on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J Future Early Childhood Educ. 2010;17(2):49-70.
14. Kim MS. Comparative study on stress that mothers with infants have in raising them: Focused on native and immigrant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yang: Sungkyul University; 2009.
15. Bae KE, Lee KH, Kim YH, Ki S, Kim HK, Kim JH. Child -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Child Health Nurs Res. 2010;16(3):175-83.
16. Yoo EK, Kim HJ, Kim MH.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12 Apr;42(2):171-80. http://dx.doi.org/10.4040/jkan.2012.42.2.171
17. Kim HS.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2):188-98.
18. Nam IS, Ahn S.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2): 99-108.
19. Kim MK. Influences on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y wife by spous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uk University; 2011.
20. Song SH, An HJ.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1;20(2):167-79.
21. Lee KH, Kim KS, Kim JH, Kim YH, Park HS, Jeong, GH, et al. Transcultural nursing-assessment and intervention (Giger JN & Davidhizer RE, Trans.) Elsvier Korea,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2011.
22. Lee EH, Seo GH, So AY, Youn GJ, Lee KS, Lim SO, et al. Transcultural concepts in nursing care (Andrews MM & Boyle JS, Trans.). Seoul: SooM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2012.
23. Andrews MM, Boyle JS. Transcultural concepts in Nursing care. fifth Editions. Wolters Kluwer: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8.
24. Abidin R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 Cons Clin Psychol. 1992;21:407-12.
25. Kim DH. The comparative study of parenting stress of low birth weight infant' mother and full term infant's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7.
26. Kwon MK, Kim HW, Kim NS, Jang JA.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Child Health Nurs Res. 2006 Jul;12(3):314-21.
27. Leung SS, Leung C, Chan R. Perceived child behaviour problems,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comparison of new arrival and local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in Hong Kong. Hong Kong Med J. 2007;13(5):364-71.